

News

금융당국, 고 DSR 대출비중 축소 검토...고액·다중채무자에 영향

연합뉴스

금융당국, DSR 규제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 일환으로 논의 중...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금융사 60% 적용
연말까지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를 6.99% 이내로 관리하려고 노력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첫달 이자 지원 연말까지 연장

조선비즈

카카오뱅크,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첫 달 이자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 이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 응모 불필요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저신용 고객에 지원한 이자 약 43억원, 총 11만 9,000여명이 혜택 수혜

토스뱅크도 신용대출 막히나... '사전 신청자' 대출로만 전체 60% 소진

이코노미스트

토스뱅크, 대출한도 60% 소진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신용대출 중단될 가능성 높아져... 출범 후 나흘만에 실행된 대출액 3,000억원에 육박
중·저신용자 비중은 25% 이상... 대출 받은 고객들은 토스뱅크 출범 전 사전신청한 수요자들... 지난 5일 출범 첫날에만 사전신청자 116만명 포함해 120만명이 몰려...

오늘 한은 금통위 열린다... 또 기준금리 인상할까

머니S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열려... 지난 8월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 결정할지 관심 집중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추어 기준금리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 서영경 한은 금통위원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 기대심리도 가세 중" 언급

코로나 위기에도 보험 산업은 썩썩...내년에도 3.2% 성장한다

매일경제

보험연구원, 내년 보험산업이 올해 4.3%보다 소폭 감소한 3.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하며 성장세 이어간다는 분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올해 4.3%에서 1.7% 증가세 둔화 예상되나 코로나19 반사효과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도 내년 4.9%로 증가세 지속할 것

삼성생명 '후천적 장애 보장' 배타적사용권 신청

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 후천적 발생 경증이상 장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신청... 소득상실 상태가 되는 경증이상 장애 발생 시 소득까지 보상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서비스 개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판매권 부여 제도... 업계 최초 맞춤형 원스톱 프로그램 개발해 3종의 위험도 보장

코리아에셋증, 자기자본 주식투자 가능해지나

서울경제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금융당국에 지분증권 투자 매매업 인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 당국 신청 수용 시 자기자본으로 주식, 신주인수권, 합자 조합 등에 투자 가능
금감원 심사 통과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인가... 동사는 현재 채권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인가 받은 상태

물건년 '서학개미'...증권사 외화예탁금 12조원 넘었다

머니투데이방송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국내 31개 증권사에 맡긴 달러화 등 외화 예탁금 규모는 12조 1,367억 원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의 외화예탁금이 가장 많아... 총 2조 7,559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배 이상 증가... 미래에셋증권 2조 5,327억원 앞질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